

완도, 다문화가정 안정 정착 돕는다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13억 투입

베트남·필리핀 등 총 396명 거주

자녀 교육·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완도군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 및 균형 방침인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

녀 교육, 심리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총 396명으로 12개 읍면에 가정을 꾸려 거주하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1억 7,800만 원을 투입해 다문화가족 건강 검진 비용과 다국어 번역기 지원, 결혼 이민자는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친정 나들이 지원, 국적 취득 비용, 행복 정착 지원금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결혼이민자 친정 나들이는 1가구당 250만 원

이내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며, 국적 취득 비용은 1인 당 30만 원의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를 지원한다.

또한 총 1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가족센터 를 통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운영, 다문화가족방 교육 서비스, 사례 관리·통번역·자녀 언어 발달·자녀 코칭 등을 15개 사업을 지원 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은륜의 질주

제70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가 강진군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 도로 단거리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해남, 1억 이상 고소득 농가 753명 '도내 최다'

축산·가공유통 분야 증가세

해남군의 1억이상 고소득 농가가 전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75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남군은 전남도 고소득 농가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연도별로 2018년 522명, 2019년 548명, 2020년 604명, 2021년 720명, 2022년 75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품목별로는 벼 등 식량작물이 339농가 가장 많고 축산 209농가, 채소 112농가, 유통 가공 75농가, 특용과 과수, 기타 작목에서 18 농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에 비해 축산 20농가, 가공유

통 21농가가 증가하면서 고소득 농업인 증가를 주도했다. 한우 사육농가 증가와 규모 확대, 수도작 등 복합영농 증가에 따른 축산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해남미소 및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을 통한 가공 유통 농가의 활성화가 고소득 농가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 농지면적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 1위 지역으로,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 강화로 농업의 고소득 산업화를 이끌고 있다.

민선8기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농촌'을 목표로 올해 군 전체예산의 29.5%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투입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업의 규모화,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판로확보,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확충 및 다양화, 친환경축산 실천, 복합영농 등 선도 지자체로서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군의 3년연속 고소득 농업인 1위 달성은 미래농업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꾸준한 지원을 펼쳐온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등 고부가가치 미래농업 육성과 유기농 중심의 품목별 다양화 추진, 농축산물의 다양한 가공유통 판매 활성화 등을 통해 부자농촌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장성군이 최근 장성군농협통합RPC, CJ브리딩과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장성군 제공

장성, 식량산업 발전 성공모델 만든다

군-통합RPC-CJ브리딩 협약

장성군이 최근 장성군농협통합RPC, CJ브리딩과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성군은 단지 조성 등 농정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을 펼친다. 산지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장성군농협통합RPC는 농업인 조직화 및 규모화를 맡는다. CJ브리딩은 장성군 농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발굴에 힘쓴다.

CJ브리딩과 군의 인연은 2019년 가공용 원료곡 전문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장성

군이 CJ햇반 원료곡 품종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89농가가 250ha 규모로 재배에 참여해 연간 1,400톤의 원료곡을 생산하고 있다.

장성군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실무협의팀을 구성해 CJ브리딩에서 선정한 새로운 전략 품종을 장성에 먼저 도입할 계획이며, 계약재배 면적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기후 변화와 쌀값 파동 등 작금의 농업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농업 소득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연봉 6천만원·아파트 공짜...“부부만 오세요”

Y-마트 김성진 대표 제안

영암 재건프로젝트 첫발

'부부 연봉 6,000만원 보장, 아파트 공짜 제공'

귀가 솔깃해지는 이 제안은 영암군과 지역 내 유통기업인 Y-마트(대표 김성진)가 함께 구상하고 있는 '영암군 재건프로젝트'의 한 가닥이다.

영암군 금정면 출신으로 증권 유통기업인 Y-마트와 와이마트물류를 이끌고 있는 김성진 대표의 제안을 우승희 군수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조금씩 그려가는 상황이다.

김성진 대표가 그리는 큰 그림은 자신의 고향인 금정면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을 막고 아이들이 북적이는 농촌을 만드는 데 민, 관, 학, 지역사회 등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공동체 운동이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금정초중학교 인근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곳에는 Y-마트와 지자체, 지역사회, 독지가 등이 힘을 모아 신흥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20여평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는 좀 더 넓은 30여평 크기의 아파트도 지을 계획이다. 이들 아

파트는 금정면에서 살아보겠다고 들어오는 부부들에게 전액 공짜로 제공한다.

최대 관심은 일자리 문제. 김 대표는 인근 지역인 나주혁신도시와 장흥 등지에서 운영 중인 Y-마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을 내놔다.

중형마트인 Y-마트는 현재 광주와 전남, 전북 등지에 모두 1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부부합산 최소 6,000만원 연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강진-광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금정면소재지에서 광주까지 걸리는 시간도 불과 20분 거리여서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Y-마트 매장까지 출퇴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그림이 완성되면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는 금정면에 다시 활기가 돌고 청년과 아이들이 북적이는 소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복안이다.

김성진 대표의 이같은 구상에 우승희 영암군수 역시 적극적인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

영암재건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 우 군수는 대안위 토지 매입 및 단지 조성, 분양 등의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공영개발TF팀을 신설하고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영암=최복섭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조영탁 하늘팍 대표, 아동복지시설 후원품

무안에서 양돈업을 하는 하늘팍 조영탁 대표가 최근 삼겹살 데이를 맞아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을 위한 돼지고기 70kg를 사회복지법인 소전원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품은 하늘팍 조영탁 대표가 지역의 소외된 아동들의 안부를 살피고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있는 음식을 제공

해 새 학기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 일요음에 있는 소전원에는 39명의 아이들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소전원은 1951년에 설립된 이래 시설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며 소외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



신안소방서, 임자119지역대 발대식

신안소방서는 최근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과 한재성 임자면장, 초경 내빈과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자119지역대 발대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임자119지역대는 신안소방서의 7번째 119지역대로 지정돼 지상 1층, 연면적 173.16㎡ 규모로 소방공무원 6명,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가 배치돼 임자주민 3,200여명의 안전을 24시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킨다.

/신안=이주열 기자



강진보건소, 신강진 건강대학 개강

강진보건소가 최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수강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신강진 건강대학' 개강식을 열었다.

'신강진 건강대학'은 지역사회 건강 리더를 육성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설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건강리더의

역할 ▲건강지도자 2급 양성과정 ▲심뇌혈관질환관리 ▲금연·절주와 건강한 식습관 ▲마음건강관리 ▲치매 예방 트레이닝 ▲응급처치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돼 있다.

강좌는 3월부터 10월까지 학기제로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총 16회 32시간 진행된다.

/강진=한태선 기자